투데이 칼럼

미국 '민감국가' 명단에 지정된 한국

정 복 규
논설위원

미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동맹국인 한국을 추가했다. 정치·외교, 기술 협력 등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한국을 에스씨엘 내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는 정보방첩국이라는 정보기구가 별도로 있는데 정부 내 17개 정보기관, 국가핵안보청(NNSA)과 협업해 민감국가를 지정하고 관리한다.

민감국가는 단계에 따라 '기타 지정국가' '위험국가(중국·러시아 등)' '테러지원 국가'(북한, 시리아, 이란 등)로 구분된다. 민감국가 명단은 정식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매년 수정되는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어떤 이유로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경계감이 이유라고 지적한다.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이후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 핵무장론을 계속 주시해왔다.

게다가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라며 보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핵무장론, 핵자강론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핵무장 여론을 고조시켰다.

지금 한국은 핵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를 비롯한 여러 기구들이 핵확산 우려 때문에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미국 행정부와 다른 점이 있더라도 핵확산을 허용할 것이라는 한국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지정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

이번에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는 한국에서 확산되는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경고로 볼 수밖에 없다. 4월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추가한 명단이 시행되면 한미간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에 제한이 생기고,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국 가운데는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민감국가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 등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1년에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방문하는 한국 과학자가 2천~3천명 정도다.

앞으로는 일일이 사전에 서류를 제출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첨단 기술이나 민감기술에 대해서는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다.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로 반복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두 달 가까이 관련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사 설

전북 노인회관 버스정류장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위치한 전북 노인회관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하다. 전북 노인회관은 화산체육관과 진북터널 중간 도로변에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너무 멀어 이곳을 찾는 노인들의 불편이 너무 크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평화동 쪽에서 오는 어르신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일단 화산체육관에서 하차한 후 노인회관까지 걸어야 한다.

덕진동 방향에서 오는 어르신들은 중산공원에서 하차한 후 진북터널 입구 횡단보도를 건너 우회전하여 노인회관에 온다. 돌아갈 때는 더 불편하다. 화산체육관까지 걸어간 후 일단 횡단보도를 건넌다.

그리고 다시 근영여고 건너편 정류장까지 걸어야 한다. 노인회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노인회관 내에는 노인지도자 대학이 연중 설치되어 있다. 노인지도자 대학에 다니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70대, 80대, 그리고 90대까지 모두 고령자들이다.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노인회관을 찾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회관 양쪽에 버스 정류장과 신호등 설치가 시급하다.

버스 정류장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하거나,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마다 버스 정류소의 설치 기준과 규정이 제각각 다르다.

문제는 일부 버스 정류소가 다중이용 시설과 거리가 지나치게 멀다는 점이다. 교통 약자들에게는 버스 정류장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전북 노인회관 앞에 정류장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어르신 바리스타 교육장

국민연금공단과 전주시가 합동으로 노인 취업지원센터에 바리스타 교육장 '전주카페 꽃심방'을 열어 관심을 모았다. 이곳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새터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한다.

무료로 바리스타 교육을 한 뒤 취업 알선이나 창업을 돕기로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시에 2억 8020만원의 성금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하는 성금 전달식을 가지기도 했다.

이번 바리스타 교육은 전북 지역과의 상생 및 동반 발전을 위해 거액을 기부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바리스타 교육은 취약계층이 대상자이다.

20명씩 4차례에 걸쳐 80명을 교육하게 된다. 교육은 7월 13일부터 시작된다. 기간은 이론 및 실기교육 1개월, 현장실습 6개월 등 총 7개월 코스로 진행된다.

'전주카페 꽃심방'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60명을 최종 배출할 예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통비 식비 등도 제공한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전주카페 꽃심방의 '꽃심'은 전주 출신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서 따온 것으로 전주정신을 상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기관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노인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취업과 창업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전주카페 꽃심방'이 바리스타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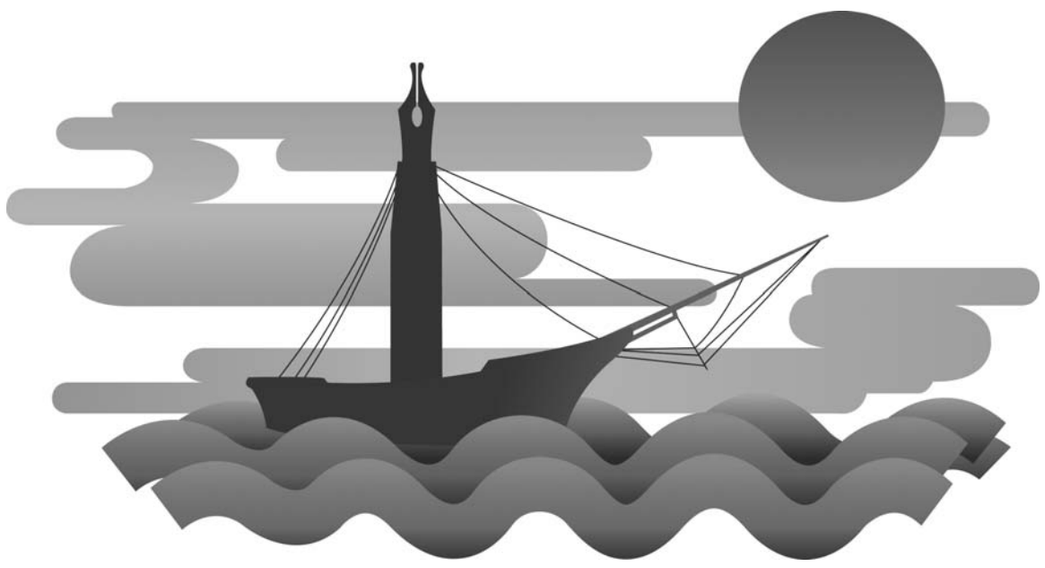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족 잃고 홀로 구조된 신생아

지난 20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부모와 오빠를 잃은 생후 25일 된 엘라가 잔해 속에서 구조된 후 대고모 품에 안겨 있다.

노르웨이 총리와 기자회견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사진 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총리 관저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 금지를 뜻하는 중립국 지위 유지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중립국 유지' 요구는 종전 제안이 아닌 최후통첩"이라며 "그것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블록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